

‘뜨겁게 차갑게…’ 희망을 꿈꾼다

특해 연안 휴양 도시 소치에서 제22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한국 선수들은 8일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화려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가 함께하는 겨울철 스포츠 잔치에 참가하는 기쁨을 맛보며 소망을 다짐했다.

기수로 나선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36·서울시청)은 ‘진짜’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번이 벌써 6번째 올림픽이다. 그동안 수차례 세계신기록을 세웠지만 올림픽 메달은 한개도 못 땀다. 이규혁은 “그래도 내 목표는 메달”이라고 말했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에서 레이스를 마친 뒤 “안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한 게 아직도 생생하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연패를 노리는 ‘빙속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는 “3위 안에만 들면 흑해에서 맘껏 놀고 싶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금메달을 만다면 기쁨은 더 커진다. 은퇴 무대에서 역시나 2연패를 겨냥하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24·올댓스포츠)는 지난달 미디어데이 때 “마지막 축제, 훌가분한 마무리”라고 소치올림픽을 표현하면서 “언제나 ‘블린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신다운(21·서울시청)은 찰스 헤들린(캐나다)과 빅토르 안(러시아)을 꺾고 우승을 꿈꾼다. 신다운은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0m·1500m, 종합 등 3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쇼트트랙이 부

진하기에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3관왕 이상을 노리는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17·세화여고)는 “3000m 계주 금메달만은 꼭 따낸 뒤 놀이공원에서 놀고 싶다”고 천진난민하게 말했다. 부상과 골육종으로 출전을 포기한 쇼트트랙 대표 노진규(22·한국체대)의 누나 노선영(25·강원도청)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생 뒤편까지 해내겠다며 눈물을 삼켰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호준(24·CJ제일제당)은 결승(40명 중 16명) 진출을 꿈꾼다. 남몰래 연마한 ‘백투백 1080’ (한쪽 슬로프에서 공중 3회전한 뒤 반대쪽 슬로프에서도 공중 3회전) 기술만 잘되면 이룰 수 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전하겠

다”고 말했다. 알파인 스키 정동현(26·경기도체육회)은 ‘한국 스키의 전설’ 허승욱이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기록한 한국 최고 순위인 21위를 경신하는 게 목표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디자이너 출신 박희진(35)은 “12명이 나서는 결승 진출이 목표”라면서 “김연아와 같은 날 경기하지만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썰매 종목 중 스텝레톤 간판 윤성빈(20·한국체대)은 깜짝 반란을 꿈꾼다. 하루 여덟끼를 먹으며 체중을 12kg이나 늘린 고초를 상위권 진입으로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아마추어·대학생 출신으로 국가대표까지 된 ‘한국판 클러닝’ 봅슬레이 대표

팀의 주전 원운종(29·경기연맹)은 15위 이내 진입을 노린다. 올림픽이 끝나면 실업팀도, 상무도 없어 갈 곳은 없지만 그래도 평창을 향한 희망만은 찾아야 한다. 얼마 선수들은 어린 자녀를 떠올렸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간판 이채원(33·경기도체육회)은 임신 9개월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훈련한 지독한 열정파다. 이채원은 “목표는 4년 후 평창올림픽 출전”이라며 “일단 소치에서는 두살배기 딸은 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고 엄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 봅슬레이 2인승에 출전하는 김선욱(34·서울연맹)도 “여섯살 아들 민범이에게 엄마가 마지막 4차 레이스까지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바이애슬론 남녀 대표 이인복(30·포천시청)과 문지희(26·전남체육회)는 소박한 꿈을 그린다. 이인복은 “4살, 3살이 된 두 아들에게 아빠가 훌륭한 바이애슬론 선수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지희는 “그게 도대체 무슨 종목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바이애슬론은 사격과 스키를 동시에 하는 종목이다.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71명이 모두 똑같이 품고 있는 목표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곳 소치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그 희망은 4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소치 I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